



차세대 케이팝 아티스트를 뽑는 엠넷 프로그램 '아이랜드'의 프로듀서를 맡은 가수 비, 방시혁 의장, 지코(왼쪽부터)가 24일 제작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쟁에 매몰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CJ ENM

“스스로 개척해가는 아티스트 돕겠다”

23명 연습생의 관찰형 리얼리티 3000평 스튜디오·제작비 200억 방시혁 “책임감·미래 가능성 중요” 제작진 “외부 참관인제로 투명성 ↑”

‘비, 지코, 그리고 방시혁.’ 가히 초호화 프로듀서 군단이다.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낸 방시혁 프로듀서와 요즘 가장 ‘핫’한 가수 비와 지코.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여기에 빅히트의 수석 프로듀서인 피독과 안무가 손승석도 디렉터로 참여한다. 무대는 26일 밤 11시부터 방송하는 엠넷 ‘아이랜드’. 차세대 케이팝 아티스트 자리를 두고 23명의 연습생이 경쟁하는 과정을 담은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오디션 지원자들은 영화 ‘허거게임’을 연상시키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건

물에서 다양한 협업과 경쟁을 펼친다. 엠넷은 여느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아이랜드’만의 세계관을 구현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9910여㎡(약 3000여평) 규모의 초대형 복합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제작비로만 2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방송을 시작도 하기 전에 프로그램 안팎에서 불거진 잇단 구설과 논란은 시청자를 크게 실망시키기도 했다. 과연 이들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방시혁 “케이팝 수준 상향 평준화·지원자 잠재력 볼 것”

첫 방송을 앞두고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가수 비와 지코가 24일 오전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반전의 출사표를 던졌다.

총괄 프로듀서로 평가 방향을 설계하는 방 의장은 “참가자들이 경쟁에 매몰되

고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수동적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팀 공헌도 ▲미션 수행과 함께 자발적인 행동과 책임지는 자세, 삶을 개척해나가는 아티스트로서 가능성 ▲미래 가능성 등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방 의장은 MBC ‘위대한 탄생’ 이후 10년 만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점으로도 눈길을 끈다. 당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기 전이었고, 케이팝도 크게 달라졌다.

그는 “10년간 대중이 바라는 아티스트의 모습도 바뀌었고, 케이팝 아티스트 수준도 굉장히 상향 평준화됐다. 대중의 기대도 높아졌다”면서 “나 역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말했다.

●“오디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조”

이날 제작발표회에 함께 참석한 정형진 CJ ENM IP(지적재산) 운영담당 상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프로듀스’ 전 시리즈에 걸쳐 일부 제작진이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구속되는 등 방송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투표 자체를 외부 플랫폼 위버스(빅히트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를 통해 진행하고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상무는 최근 일부 출연진과 스태프가 무대에서 낙상한 사고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사고 즉시 촬영현장을 점검하고 세트에 펜스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완했다. 제작 인원도 충원에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호텔 델루나’, 미국 TV 시리즈로 제작

지난해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호텔 델루나’가 미국 TV 시리즈로 제작된다. 24일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에 따르면 미국 할리우드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공동으로 기획해 제작한다. 스카이댄스는 영화 ‘터미네이터’, ‘식스 언더그라운드’, ‘미션임파서블’과 드라마 ‘그레이스 앤 프랭키’, ‘얼티드 카본’ 등을 제작한 회사로 미국 버전 각본은 ‘얼티드 카본’의 제작 총괄이었던 엘리슨 샤프커가 맡는다. 빌 보스트 스카이댄스TV 대표는 “인간의 삶,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에 둔 화려한 비주얼 판타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BTS 이전 발표한 2곡 ‘빌보드200’ 역주행

그들 방탄소년단이 과거 발표한 2개의 앨범이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인 ‘빌보드200’에서 동시에 역주행해 시선을 끌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2월21일 발표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이 24일(한국시간) 발표된 빌보드200 최신 차트에서 44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2주전 74위를 기록했다가 지난 주 10계단 뛰어올라 64위를 차지했고, 이번 주 다시 20계단이나 상승했다. 또 2018년 8월 발표한 ‘러브 유어셀프 컬 앤서’도 지난주보다 81계단이나 뛰어오른 117위를 기록했다.

이서진-아이유, 국제청 홍보대사 위촉



연기자 이서진과 가수 아이유(이지은)가 국제청 홍보대사가 됐다. 두 사람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아이유는 “성실 납세에 관한 생각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성실 납부를 위해 올해 국제청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진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도 받고, 국제청 홍보대사라도 활동하게 돼 영광이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저와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기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7월말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몇 차례 연기됐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7월 말 서울에서 열린다. 공연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최근 수도권 지역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좌석 간 거리두기’ 형태로 공연을 열기로 했다. 24일 쇼플레이 측에 따르면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매주 금요일 1회와 토요일 2회씩 3주간 총 15회 진행한다.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연장 협조가 가능한 지역만 우선 공연을 진행하고, 협조가 어려운 지역은 추후 가능한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배우 우도환, 내달 6일 육군 현역 입대

연기자 우도환이 입대한다. 우도환 소속사 키이스트는 24일 “7월6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2년생으로 28세인 우도환은 당초 OCN 드라마 ‘하어로’ 출연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입대로 인해 불발됐다. 우도환은 12일 막을 내린 SBS 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에서 1인2역으로 활약해 인기를 얻었다. 2016년 KBS 2TV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로 데뷔한 그는 ‘매드독’ ‘위대한 유혹자’를 거쳐 영화 ‘사자’ ‘신의 한 수:귀수 편’의 주연으로 활약했다. 전역일은 2022년 1월5일이다.

돌아온 조승우, 안방극장 ‘2연타’ 노린다

8월 tvN ‘비밀의 숲’ 시즌2 방영 예정 SF장르 JTBC ‘시지프스’는 촬영중

조승우가 돌아온다. 이례적으로 두 편의 드라마를 연이어 내놓는 광속 홍보까지 보인다.

조승우가 8월 tvN 드라마 ‘비밀의 숲’으로 안방에 복귀한다. 사전 제작으로 기획해 최근 모든 촬영을 마친 그는 섬 없이 차기작인 JTBC 드라마 ‘시지프스:더 미스’(가제)에 돌입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현실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부터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SF 미스터리 장르를 넘나들며 연기 변신까지 예고하고 있다.

조승우가 먼저 내놓은 드라마는 2017년 검찰과 스폰서의 은밀한 유착을 파헤친 ‘비밀의 숲’을 잇는 후속편이다. 치밀한 극본과 연출, 배우들의 연기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종영 직후 시즌2 제작 요청이 쏟아졌고, 이에 조승우를 비롯한 제작진이 응답해 3년 만에 2편을 완성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처음 시리즈의



조승우

주연을 맡은 조승우는 남다른 각오와 애정으로 ‘비밀의 숲’에 임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만큼 울공은 신념을 가진 주인공 황시목 검사는 이미 조승우의 ‘본신’으로도 꼽힌다. 그를 중심으로 배우나, 이준혁, 윤세아 등 1편의 주역들이 다시 뭉친 시즌2에서는 실제 검찰을 둘러싼 가장 예민한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다.

조승우는 ‘비밀의 숲’을 마치자마자 ‘시지프스’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의 드라마에 출연해온 그가 처음 도전하는 SF·미스터리 장르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신화’라는 부제가 붙은 ‘시지프스’는 전쟁을 막기 위해 미래에서 온 인물과 현재 엔지니어가 만나 벌이는 이야기다. 최근 시공간을 넘나드는 소재의 드라마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로, 조승우는 박신혜와 호흡을 맞춘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인간수업’ 주역들, 안방 노크 가속화

김동희 ‘유퀴즈’서 가정사 고백 화제 박주현 ‘좀비탐정’ 남윤수 ‘산후조리원’

김동희, 박주현, 남윤수 등 드라마 ‘인간수업’의 주역들이 새로운 무대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10대들의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파격적으로 그려내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모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안방극장에 진출하며 행보를 넓히고 있다.

김동희는 최근 유재석·조세호가 진행하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개인사를 고백해 화제를 모았다. 17일 방송분에서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밝혔다. ‘인간수업’ 속 지질학자로서 잔혹한 범죄행각을 벌이는 10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솔직담백한 면모를 드러냈다. 향후 또 다른 연기자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인간수업’에서 우등생이지만 부모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에 가담했던



김동희

박주현

남윤수

박주현도 안방극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 KBS 2TV 새 드라마 ‘좀비탐정’이 그 무대다. 좀비가 탐정으로 변모해 인간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를 통해 더 폭넓은 시청자를 만나게 됐다.

남윤수는 ‘인간수업’ 속 김동희를 괴롭히는 ‘일진’이었다. 그는 8월 방송을 예정한 tvN 새 드라마 ‘산후조리원’으로 향한다. 산후조리원을 배경으로 산모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드라마에서 그는 태백기사로 분해 ‘인간수업’으로 얻은 폭력적 10대의 이미지를 벗을 기세다. 엄지원, 박신혜 등 여성 캐릭터들이 이끄는 드라마 속에서 진절하고 밝은 ‘해피맨’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